

권력의 욕망 앞에 꺾인 자생적 근대화의 꿈

《정조대왕의 꿈》 펴낸 유봉학 교수

‘진경시대’라 일컫는 정조 재위기간을 다루고 있는 이 책은 정조의 개인적 치적뿐 아니라, 정조와 그 측근들의 정치이상이 사회와 문화 전체로 확산되는 양상을 재구성함으로써 진경시대의 역사상을 다시 세운다. 아울러 정조의 독살로 개혁이 좌절했다는 등 식민사관의 논리적 잔재를 청산하면서 정조가 펼친 정치드라마를 통해 오늘날 정치 및 개혁의 불철저성을 반성하는 기회로 삼자고 주장한다.

유봉학 교수(48, 한신대 국사학과)가 펴낸 《정조대왕의 꿈》(신구문화사)은 나오자마자 화제가 됐다. 이인화의 역사소설 《영원한 제국》(세계사)을 형편없는 3류로 점찍고 그동안 정설로 받아들여져 온 역사적 사안들에 대해서도 공격의 포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유교수가 이 책을 비판하는 이유는 “독살설이 날조된 사실”이고 “정조라는 한 개인이 독살됨으로써 개혁정치 전체가 거꾸러졌다는 영웅중심주의적 사관” 때문이다. 역사학자가 문학에 시비거는 것은 자칫 오해를 받기 십상임에도 유교수는 단호하다. “소설의 내용 자체는 문제삼을 수 없지만 작가가 그를 통해 독자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지나 세계관은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조시대 정치사상의 혁신성 밝혀

《정조대왕의 꿈》은 ‘왕’이라는 창으로 시대를 읽고자 한 시도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것도 없는 접근법이지만, 이 책은 제목의 뉘앙스와는 달리 정조 주변을 고증하고 잘못된 사실을 까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지은이의 주장은 전방위적으로 뻗어나간다. 그 한 축은 사도세자의 아들로 불안하게 왕위에 오른 정조가 ‘왕권’을 정립하기까지 어떻게 과벌을 조정하고 관료들 등용했는지 그 세력관계를 정치하게 분석해 들어간다. 다른 한 축은 서울 지역에 형성된 경화사족 중심의 소장과 관료들과 그들의 사상 정립 과정을 사회사적인 방법으로 접근했다.

“정조시대를 사상사나 정치사쪽으로 연구한 경우는 적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학설이 정설로 굳어지곤 했죠. 학계는 아직도 정조의 개혁정치가 왜 그리 쉽게 꺾일 수밖에 없었는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조의 정치원칙은 ‘우문지치’(右文之治)의 학문 우위 정책과 ‘좌현우척’(左賢右戚)의 공론 정치다. 유교수는 정치적 기반이 약했던 정조가 노론 계열을 무시한 채 측근인 청문세력이나 친족만을 우대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좌현우척이 비롯됐으며, 그래서 학문적·사상적으로 일치점을 찾아 노론-소론-남인 세 정파의 안정된 ‘삼상체제’를 유지하려 했던 것이라고 분석한다.

“물론 이것을 정치적으로만 해석할 수 없죠. 정조의 개인적 성향도 중요한 역사적 사안입니다. 그는 《홍재전서》라는 문집을 남긴 학자였고, 학문적으로 노론의 거두며 성리학의 대가인 우암 송시열을 가장 존경했죠. 폐쇄적이기보다는 개방적인 군주였습니다.”

경화사족의 사상과 문화의식 부각시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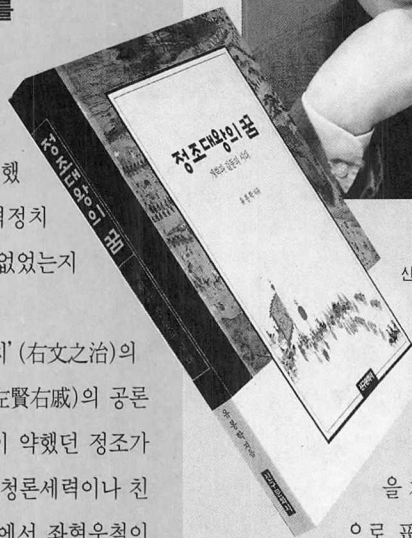
정조대에 이르러 조선의 개국이념인 주자학적 예법과 가부장적 질서가 점진적으로 정착되면서, 이것이 진경시대의 경제적 번영과 문화적 중흥의 기반이 됐다. 서울이 근대적 도시로 발전하고, 지방 사람을 정치에 끌어들이으로써 서울에 경제와 문화가 집중하는 중앙집권화가 정착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탕평정국에 참가해 경화사족으로 전환한 사림의 문인들이다.

“경화사족의 활동은 기존의 신분관념과 학문 체계에 거대한 균열을 일으킵니다. ‘소중화’라는



유봉학 교수

신구문화사/A5변형/310면/10,000원



문화적 자존심은 우리의 역사적 경험과 자연산천, 의관풍물을 재인식하고 이를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문학과 예술활동으로 발전해 ‘진경문화’를 낳았고, 인간의 ‘경제적 지위’에 눈뜨면서 이기이리론의 울타리를 벗어나 농공상 전반을 학문영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대두됐죠.”

하지만 이런 정치적 안정과 문화적 중흥은 얼마 가지 못했다. 집권 후기에 정조가 왕권 강화로 정치노선을 변경하면서 자연히 사림정치와 긴장을 빚고, 측근 관료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게 되자, 마침내 외척을 끌어들이는 정국 운영 방침을 생각하기에 이른 것이다. 유교수는 탕평정치가 파국을 고하는 이 순간을 유념하라고 말한다.

“신료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왕권강화 의지와 군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사림정치의 이상론은 탕평정치와 사림정치 모두 실패하는 결과를 불러들였습니다. 개혁의 불철저성에서 조선 후기의 발전은 그 기세가 꺾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유교수는 한국 근대사에서 확인되듯, 우리가 2백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서구문물을 소화할 수 있었던 것은 정조와 그 시대 사람들이 쌓았던 문화적인 역량 때문이라는 지적을 잊지 않는다. - 강성민 기자